

# 美, 알래스카 에너지 시추 위해 보호구역 해제 추진

### 바이든 행정부 때 정한 5만2천여km<sup>2</sup> 시추 제한 취소키로 내무·에너지장관, 알래스카 콘퍼런스 하루 전 현지 시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에서의 석유, 천연가스 등 시추 확대를 위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한 보호구역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내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알래스카 내 약 1천300만 에이커(약 5만2천600km<sup>2</sup>)에 달하는 구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제한한 것이 권한 범위를 넘어서었다고 하며 취소를 제안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알래스카 지역의 국립석유보호구역(NPR-A) 내 1천300만 에이커에 대해 새 유전 및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부지 임대 등을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제정했는데, 이를 취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 내무부는 이 같은 방침을 연방 관보에 게재해 향후 60일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에너지 업계는 환영하고, 환경보호 단체 등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검 장관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 지원이라는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가장 중요한 때 국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버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날 알래스카 가스전이 있는 프루도베이를 시찰했다.

3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제4차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하루 앞서 현지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 홍보에 앞장선 것이다.

라이트 장관은 현장에서 가스전 직원 등을 대상으로 "알래스카에서" 석유 생산량을 두배로

늘리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쌍둥이(유전)를 건설하자. 그러면 우리는 세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와 가족을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프루도베이 방문에는 마츠오 다케히코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차관도 동행했다고 AP는 전했다.

콘퍼런스는 알래스카 주정부가 한국, 일본 등의 정부 관계자들에게 가스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다. 한국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초기 사업비가 440억 달러(약 60조원)로 추정되는 이 사업은 북극권의 가스전에서 알래스카 남쪽까지 약 1천3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후 이곳에서 가스를 액화해 아시아 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리스크가 커 액손모빌 등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손을 떼 오랫동안 진척되지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한국과 일본에 사업 참여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이 투자하고 알래스카산 에너지 도입량을 늘리면 대미 무역 흑자도 줄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알래스카에서는 수십 년 동안 천연자원 개발과 자연 보호를 둘러싼 이견이 존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공약 구호인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을 고수하며 미국 내 석유·가스 증산 및 이를 통한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재점령 나선 이스라엘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군인들이 국경 근처에서 가자지구를 향해 발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독일 '불법이민자 즉각 추방' 법원서 제동

### "어느 나라가 책임질지 결정 전엔 안돼"

유효한 서류나 자격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를 국경에서 곧바로 추방하는 독일 정부의 난민정책이 법원에 가로막혔다.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로 추방된 소말리아 국적 난민 3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국경에서 검문을 통해 난민을 돌려보내는 조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유럽 난민협정인 더블린 조약에 따라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어느 나라에서 맡을지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난민을 추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유럽연합(EU)에 처음 입국한 국가가 망명 절차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난민이 많이 유입되는 일부 국가는 실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독일 새 정부는 출범 이틀째인 지난달 8일 이민부와 어린이,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곧바로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의 지시에 따라 처음 어느 나라에 입국했는지와 무관하게 난민을 받아들였다.

소송을 낸 소말리아인들은 이 지침이 발표된 이튿날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독일에 입국했다. 이들은 독일 동부 프랑크푸르트-오더역에서 연방경찰의 검문을 받으면서 망명 신청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 폴란드를 '안전한 국가'로 간주해 같은 날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 '저출산 초입' 베트남, 첫 인구법 제정 착수

### 지난해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1.91명

베트남 정부가 차츰 뚜렷해지는 저출산 추세에 대응해 인구법 제정에 착수하는 등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의 첫 인구법 초안을 작성 중이다.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까지 21명 이상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지난해 1.9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통상 21명이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으로 여겨진다.

특히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찌민시를 포함한 남동부 지역은 1.48-1.62명 수준으로 떨어져 경제적으로 발전한 도시 지역의 합계출산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반면 북부 산악지역(2.34명), 중부 고원 지역(2.24명) 등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늦은 지역은 출산율이 높았다.

이처럼 출산율과 인구 구조의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공 서비스를 압박하며 국가적 결속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현재 인구가 약 1억여명인 베트남은 2007년 이후 노동 가능 연령 인구의 비중이 큰 인구 구조의 황금기를 맞았다.

하지만 현재의 출산율 하락세가 지속할 경우 베트남은 이르면 2039년에 인구 황금기를 마감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우선 가구당 자녀 수를 제한하는 전통적인 가족계획 관점에서 벗어나 인구를 발전의 동력으로 보고 출산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시각의 전환을 인구법에 담았다.

당국은 이 법에 따라 각 지역·인구 집단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출산율 제고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연합뉴스

## '시진핑 군권장악 일등공신' 쉬치량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사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이후 군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 일등공신으로 평가받은 쉬치량(許其亮)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2일 사망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3일 보도했다. 향년 75세.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베이징 고위 언론인 마링(馬玲)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쉬치량이 달리를 하다 돌연 심근경색을 일으켜 현지시간 이날 오후 12시12분께 숨졌다고 전했다.

1960년 3월 산둥성에서 태어난 쉬치량은 1966년 7월 인민해방군 공군에 입대하고 이듬해 7월 공산당에 입당했으며, 1969년 공군 제5항공학교를 졸업한 후 공군에서 장기복무했다.

2004년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2007년 공군 사령관(사령관)을 거친 그는 공군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2012년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승진했다. 특히 2017년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재선임됐을 때 시 주석 다음으로 군권 서열 2위에 올랐다.

미국 매체들은 시 주석이 2012년 당 총서기 선출 이후 군권을 장악하고 기존 세력을 일소하는데 쉬치량이 큰 역할을 했다고 2018년 전했다.

그는 1988-1993년 푸젠(福建)성 성도인 푸저우(福州)에서 근무하는 동안 푸저우 당서기를 지낸 시 주석과 인연을 맺었다. 이 기간 두 사람은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분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 파크골프 샵 (골프채, 각종용품, 용구)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